

# '해묵은 현안문제 해결' 속도 낸다

### 광주·전남 2차 상생발전위...5년간 39개 협력과제 추진 군 공항 이전 등 신규협력과제 8건 포함 주요 현안 논의



25일 오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9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해묵은 과제 해결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5일 광주시청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민간 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지난 5년 간 총 39개의 협력과제를 발굴·공동 추진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24건 협력과제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민선7기 광주·전남 상생방안과 신규과제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쌓아온 상생협력의 성과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기존 협력과제를 지속 추진해 가면서 신규과제를 비롯한 8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8가지 현안은 △핵심산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 △혁신도시 시즌 2 공공기관 추가이전 공동대응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광주와 전남을 연결하는 도로망 개선 △'제13회 광주 비엔날레'와 '2020년 전남국

제 수목비엔날레' 성공 개최 협력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체계적 관리 △군 공항 이전 등이다.

우선 광주의 'AI산업', 전남의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등 핵심산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교류와 행정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전남이 함께 노력해 이뤄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의 경험을 토대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광주·전남 지역으로 공공기관 추가 배정 등 기관 유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지

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해 발전기금 조성 및 발전기금 설립에 대한 공동대응을 2020년에 국책연구기관 등에 의뢰해 실시하고, 용역결과를 수용하여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문화·체육·교육·여가·창업지원 등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고흥 우주센터 간 고속도로와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광주하남-장성삼계 광역도로와 광주삼도-함평나산 광역도로 확충, 삼례IC-광주TG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광주와 전남을 연결하는 도로망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2020년에 열리는 '제13회 광주 비엔날레'와 '2020년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의 성공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등 광주·전남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의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무등산권 지질공원 T/F를 구성하여 통합본부 설치와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등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군 공항 이전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이므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주도하에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전남은 1000년을 함께 해 온 공동운명체이고 동일생활권이기에 상생의 길을 가야하는 이유도 있지만 융·복합시대에 우리 광주전남이 뿔뿔 뿔쳐 단일 광역 경제·문제로 발전체계를 구축해야 시너지 효과를 내고 동반성장 할 수 있다"며 "광주·전남의 역량을 결합해 국책사업 유치뿐만 아니라 관광객이나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와 전남은 지난해 8월 첫 회의 이후 상생협력의 길을 걸으면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한전공대 설립,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뜻깊은 성과를 만들어 냈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활성화와 양 시도의 미래 전략산업 발전 등에 더욱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동구, 인형극으로 어린이 건강교육해요

광주 동구가 25일부터 관내 보육기관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건강인형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형극 공연은 어린이들이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평소에도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인형극은 '아토피야 잘 가라'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숲속 동물마을에 살고 있는 토끼가 아토피 피부염에 걸려 꽃대지의 도움으로 아토피 예방법을 배우는 와중에 사냥꾼에게 잡혀간 호랑이를 구해내는 이야기를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구성했다.

### 서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직무능력교육 실시

광주 서구가 지난 21일 서구문화센터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4백 명을 대상으로 보육아동의 안전 및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한 직무능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무교육은 각종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및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보육시설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옹호센터 변정량 팀장의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생명의별 응급구조사 문도영 강사의 "안전관리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 남구, 12월 한달간 관내 노후간판 50여개 정비

광주 남구는 깨끗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월 한달간 거리 미관을 해치는 노후 간판 및 주인 없는 간판을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다.

25일 남구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관내에서 한달간 노후 간판 정비 사업이 진행된다. 정비 대상은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후 간판과 거리 미관을 해치는 간판이다.

12월 한달간 관내에서 사라지는 노후 간판은 소유자 동의에 따른 노후 간판을 비롯해 거리 미관을 저해하는 간판 등 약 50여개가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 북구, 건축행정 평가 광주시 유일 우수 지자체

광주 북구가 건축행정 운영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25일 북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건축행정 평가' 결과 일반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는다.

'건축행정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1999년부터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정도를 점검,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는 일반부문(18), 특별부문(2) 등 총 20개 지자체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으며 광주시에서는 유일하게 북구가 선정됐다.

북구는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건축물 시공·철거 안전성 및 효율성,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등 평가지표 전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 광산구 임곡동 봉흥마을 주민, 마을 벽화 꾸며

광주 광산구 임곡동 봉흥마을 주민 30여명이 지난 20~25일까지 광산구와 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의 지원으로 36기구 1,200m 담에 차매천화 벽화를 그렸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마을'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벽화그리기 작업은, 광산구 차매천식 개선사업의 하나.

마을주민과 건강보험공단 직원, 봉사자들은, 5일 동안 차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담벼락에 그려 넣으며, 차매를 겪는 사람과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고, 마을 전체가 서로 보살피며 함께 차매를 극복해 가는 방안에 대해 생각했다.

임행택 기자

## 광주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광주시가 12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를 전면 시행한다.

대상은 본청, 자치구, 공사·공단 등 323개 공공기관이다. 차량2부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기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기간 공공부문 임직원 자가

용 차량 및 관용차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번호가 홀수차량이, 짝수일에는 짝수차량만 운행하는 등 홀·짝수제가 적용된다.

단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와 국가공공차, 장애인차량, 임산부, 유아동승차량, 경차, 경찰·소방용 등 특수목적 차량은 공공2부제에서 제외된다. 시청, 구청 등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 차량은 공공2부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에는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내년 5월까지 광주 진출입 주요도로 9개 지점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등 단속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민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9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연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2016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고령화 1211-1009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파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